양양소식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22. 10
Vol. 329

CONTENTS

04 기획특집
오색 흘림골 탐방로

08 마을가는 길
현북면 잔교리

12 양양군청 IN & 人
환경과

양양 연어 축제

2022.
10.28 - 30
양양남대천둔치

양양군
양양문화재단

내공

한상호

일교차가 퍽 컸었나봅니다

주전골 단풍 골물
참 깊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상호 약력

2016년 《문학세계》 등단
2017년 《시와 시학》 신인상
제3회 아시아 시인상 수상
시집 : 《아버지 발톱을 깎으며》, 《단풍 물들 나이에야 알았다》,
《꽃이 길을 놓았을까》, 《젖은 노래를 부르셨다》 외 다수

양양소식

Vol. 329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4 **기획특집_** 오색 흘림골 탐방로

8 **마을가는 길_** 현북면 잔교리

12 **양양군청 IN & 人_** 환경과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갯마을해수욕장

의기양양

16 **의정소식_**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

18 **향토사 이야기_** 관음성지 오봉산 낙산사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4 **건강 알리미_** 양양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_** 남대천 심볼마크 및 시설물 명칭 소개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양양소식 · 329호

| 발행일 2022년 10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올가을엔 오색 흘림골에 홀려 볼까?

단풍 명소 '오색 흘림골 탐방로' 7년 만에 개방

가을 산행은 오색으로 물든 단풍을 보며 눈도 마음도 즐거워지는 여행입니다. 단풍의 계절 10월에 가을 산행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가을 산행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설악산 오색 단풍의 명성은 충분히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7년 만에 흘림골을 개방한다는 소식도 들으셨나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루 5천 명 예약제로 운영한다니, 이 가을 오색 단풍의 매력을 보기 위해서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색 흘림골 탐방로 예약하세요

숲이 짙고 깊어서 늘 날씨가 흐리다고 해 붙여진 이름인 '흘림골'은 폭포의 신비로움과 암석들이 조화를 이루는 골짜기로, 가을 단풍철이면 매년 80만 명 이상이 찾던 남설악 최고의 단풍 명소다. 아쉽게도 지난 2015년 8월 낙석사고가 발생하면서 통제되었다가, 그동안 안전검사를 마치고 올해 7년 만에 다시 개방되었다.

흘림골 탐방로는 흘림골 생태탐방지원센터에서 오르막으로 1시간가량 지나면 이후는 내리막과 평지를 걸으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가을 산행의 묘미가 있다.

2015년 흘림골 탐방로 구간이 폐쇄된 후, 오색단풍 산행에 목말라하던 등산객들을 위해 2016년부터 단풍철에 한해 대

체 탐방로로 만경대 구간이 개방되었다. 설악에서 단풍이 아름다운 흘림골과 주전골을 굽어보는 만경대야말로 설악의 가을 단풍을 만나는 최고의 조망대였다.

만경대 역시 1970년부터 환경보전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다가, 46년 만에 개방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며 많은 탐방객들이 찾았지만, 코스가 단조롭고 사전 계약제로 불편하여 탐방객이 현저히 감소했다.

올해 다시 흘림골 탐방로가 개방되면서 단풍산행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자문을 통해 22개 취약지점의 위험구간 우회, 낙석 방지 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니 안심하고 단풍 나들이를 하면 되겠다.

마음대로 산행일지

흘림골 탐방로는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여심폭포~등선대~십이폭포~출렁다리~용소 삼거리~제2약수터~제1약수터~오색상가로 이어지는 총 6.2km 구간의 3시간 30분 정도의 일방향 코스다. 하지만 흘림골 탐방만 하거나 주전골까지 산행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까지 3.1km 구간(2시간 50분)을 산행할 수 있고, 주전골에서 오색약수까지 2.7㎞ 구간(50분)을 더해 산행할 수 있다.

탐방로는 큰 부담이 없어서 흘림골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1시간가량 오르막길인데, 신선이 오른다고 해 이름 붙여진 등선대 입구부터 경사 심한 데크가 이어진다. 등선대 전망대에 올라 오색의 단풍을 즐긴 후에는 등선폭포를 지나 언덕 위 데크에서 점심식사를 하면 좋다.

그리고 빼곡한 삼림으로 늘 흐리다고 해서 붙여진 흘림골이 끝나고, 단풍계곡으로 유명한 주전골이 시작되는 경계지점인 용소삼거리를 만나는데, 여기서 용소폭포(500m)방향으로 올라가 폭포에서 데크로 올라가면 차도와 연결되는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가 있어 산행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되짚어 내려와 용소 삼거리에서 금강문을 지나 선녀탕을 지나는 주전골 코스가 오색단풍의 백미로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되니, 조금 더 힘을 내면 좋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하루 5천 명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제로 운영될 가을 단풍의 최고 명소인 흘림골 탐방로에서는 단풍 구경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안전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 낙석위험구간 신속히 지나가기, 기상악화 시 하산하기 등 탐방객 유의사항을 확인해야만 예약이 가능하다.

탐방로 시설이 안전하게 재정비됐지만 지형 특성상 어느 곳이든 낙석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탐방 전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탐방 중에도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앞사람과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낙석 등 위험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통과해 대피하고 취약지점을 이동할 때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기상악화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탐방을 중지하고 하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19 또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033-801-09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주차는 오색마을 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한다. 44번 국도변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오색마을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고 흘림골 탐방지원센터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10월은 가을 산행의 성수기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산행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울긋불긋 오색으로 물든 오색 흘림골 탐방로에서 몸도 마음도 방긋방긋 즐거운 산행을 하시기 바란다.

〈**글 · 사진** : 편집부〉

흘림골 탐방로 운영기간

2022. 9. 6. ~ 통제기간 제외 (해빙기, 기상특보 등) 연중 운영

예약방법 인터넷 사전예약 (https://reservation.knps.or.kr)

오색지구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주소	주차 가능대수	가격	연락처
오색마을 주차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83 일원 오색마을지구 주차장 이용 가능(남설악, 약수터 입구)	80대	5,000원 ~ 7,000원	–
오색그린야드 호텔주차장	양양군 서면 오색리 507	소형 118대 대형 11대	30분 – 500원 대형(버스) – 20,000원	033) 670-1000
양양타워 주차장	양양군 서면 오색리 482-16	소형 471대	5,000원	033) 670-1719
양양군 주차장	양양군 서면 오색리 433-4	소형 50대	무료	
	양양군 서면 오색리 376-4	대형 45대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양양바람길 코스가이드

1 해파랑길 41코스
2 해파랑길 42코스
3 해파랑길 43코스
4 해파랑길 44코스
5 몽돌소리길
6 38선숨길 디모테오길
8 38선숨길2코스 정족산
7 38선숨길 1코스
9 불바라기약수길
10 양양 진전사지탐방로
11 구룡령옛길
12 갈천약수길
13 모노골 산림욕장
14 송이밸리숲길

보다 자세한 코스안내는 스마트폰에서 두루누비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村村

현북면 잔교리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38평화마을
주민들이 지켜 낸 쟁기동 농악의 전통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소문난 힐링 명소

조금씩 단풍이 엿보인다. 곱게 물든 나뭇잎이 보는 이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겠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곧 시린 겨울을 마주해야 한다는 비보(悲報)일 것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슬픔이 있기에 기쁨을 마주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제 메마른 가지로 겨울을 이겨낸 나무는 이듬해 더 찬란하게 물들기를 소망할 것이다.

전쟁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며 깊은 상흔을 간직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평화'의 가치를 잘 알게 된 '잔교리'처럼.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노래하다

16km에 이르는 '38선 숨길'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서린 한반도 분단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현북면 잔교리부터 명지리와 도리까지 이어진다.

잔교리는 '38선'이라는 군사분계선 때문에 한 동네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던 마을이다. 부엌과 안방이 각각 북한과 남한의 영역으로 나뉜 집도 있었고, 경계선 너머에 평생동안 일군 농지를 둔 농부들도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주요 격전지였던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피난 갔다 돌아온 주민들은 휴전선 아래에서 다시 하나가 된 마을과 마주할 수 있었다.

「 마을중간으로 하천이 형성된 관계로 하천을 건너기 위한 잔교(棧橋)가 많았다하여 잔교리라 한다. 일명 잔다릿골이라고도 한다. 1950년 10월 1일 우리 국군이 잔교리를 통과하는 7번 국도 38선을 첫 발을 디뎌 북진하였으므로 국군의 날을 지정한 계기가 된 곳이다.

– 출처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지명유래 」

잔교리는 농촌장수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운동,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다져왔다. 역사문화교류관을 짓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설치미술 작품을 마을 입구에 세웠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38평화마을'로 새로 거듭났다.

'38천'이라고도 불리는 잔교천을 따라 마을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에는 가장 먼저 포탄 모양의 돌조각들이 방문객의 시선을 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38평화마을 잔교리'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힌 총알 형상의 조형물이 있다.

하천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설치미술 작품들이 보인다. 특히 〈생존의 울림, 평화의 종소리〉라는 작품은 마을에서 알림 종으로 쓰던 철로 조각을 활용했다. 한때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위험을 알려주던 고마운 '종'은 이제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평화(Peace)를 낚는 두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 〈하나 된 마음〉을 지나 희망을 배달하는 집배원 조형물을 감상하는 사이, 길은 어느덧 마을 정자에 이른다.

정자 옆에는 전쟁 때 총탄의 흔적을 간직했던 밤나무의 밑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험난한 세월을 건너 온 역사의 흔적을 마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우연히 접한 '농악'이 마을의 전통으로

마을 정자에서 홍기성 이장과 이완산 어르신, 박광표 어르신, 최정도 어르신이 취재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잔교리의 자랑거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이완산 어르신이 '춘천에 박사마을이 있듯이, 우리 마을은 경찰마을이다.'라고 운을 떼자, 홍기성 이장이 '우리 동네에 경찰 출신이 30가구가 넘는다.'라고 덧붙인다. 전쟁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마을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컸었던 탓인지 경찰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에는 경찰서장 자리까지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그래서 잔교리는 도둑이 얼씬도 못 하는 마을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 마을에 경찰 전적비가 크게 세워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잔교리 주민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자랑거리는 따로 있었다. 바로 양양군의 전통 농악을 대표하는 '쟁기동 농악'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시작하게 된 사연은 특별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잔교리에는 투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정도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경찰이 강릉에서 전문가를 섭외해 마을 주민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게 했다는 것이다. 주민 모두가 동원되어 농악을 배우니 투전할 사람도, 시간도 없었다. 덕분에 이 마을에는 노름 문화 대신 '쟁기동 농악'이라는 전통문화 자산이 남게 되었다.

홍기성 이장은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농악 연습을 하던 어른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지금까지도 주민들 대부분이 악기를 다룰 줄 안다. 박광표 어르신과 이완산 어르신은 북을 담당했다고 한다. 일찍이 농악대 상쇠를 맡아 온 최정도 어르신은 쟁기동 농악대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가에서 인정한 쇠 명인으로 초대 국악협회 양양지부장까지 역임하는 등 국악의 대중화에 이바지했으며, 인근 지역의 농악을 전승 보존하는 데도 힘써왔다.

정교하고 깔끔한 표현이 특징인 쟁기동 농악은 양양군 안에서도 실력이 출중하기로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 강원민속예술축제, 강릉단오제 민속경연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잔교리를 비롯한 현북면의 마을들이 연합해서 쟁기동농악보존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펼쳐 보이지 못한 실력을 올해는 유감없이 발휘할 생각이다.

자연이 좋아 머물다 보면 살고 싶어지는 마을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도 어로 생활을 하지 않는 잔교리는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다. 여든 아흔을 넘긴 어르신들도 여전히 밭일, 논일을 하신다. 마을회관 앞 정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나지막한 산 아래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빛 들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아니, 그 넉넉한 풍광에 배가 다 부르다.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고 산과 물도 좋은 잔교리는 잠깐 머물다 보면 살고 싶어지는 동네다. 그래서일까? 최근 몇 년간 마을 인구가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잔교리에는 71세대 13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이주민의 비율이 대략 30퍼센트를 차지한다. 대부분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서퍼들도 잔교리의 매력에 빠졌다. 잔교리 해수욕장이 숨은 서핑 명소로 알려지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서핑을 하러 온 손님들로 꽉 찬다고 한다. 홍기성 이장은 잔교리를 서핑 체험과 함께 힐링도 하며 쉬어갈 수 있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된 잔교리는 주민들의 힘으로 누구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마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 마을은 화합이 잘되니까 그건 걱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주셔서 그게 제일 고맙죠. 앞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홍기성 이장」

지금의 잔교리를 보면, 전쟁으로 피폐했던 마을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한다. 지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38평화마을이 된 잔교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쟁취한 서사를 후세에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글 · 사진** : 편집부〉

환경과

쾌적한 양양, 삶의 만족도를 높여드려요 !

부 서 : 환경과
규 모 : 4팀 25명
업무팀 : 환경기획,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시설

매일 부지런히 쓸고 닦고 치우고, 또 치워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집안일이다. 양양의 쾌적한 환경도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기 전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양의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렁각시처럼 일하는 환경과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양양을 만들기 위해서 소음과 냄새,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환경과를 찾았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소각장(가운데) 매립장(우) 증설 조감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환경

환경과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냄새, 소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까지, 우리의 모든 감각에 불편함 없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켜가는 부서다.

예전엔 공장 폐수 배출, 매연 등 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업무가 많았다면 요즘은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환경 분야 업무로 확대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환경과는 과거 '환경보호과'라는 부서명으로 출발해 '환경관리과'를 거쳐, '환경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조직개편으로 복지업무와 환경업무가 분리되면서 '환경관리과'가 됐다. 이후 2018년 '환경과'라는 알기 쉽고 간소화된 부서명으로 최종 변경됐다.

현재는 환경기획, 환경지도, 자원순환, 환경시설 4팀으로 조직돼 총 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빈틈없이 쾌적한 양양을 사수하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팀별 업무도 세분되고 다양해졌다. 환경기획팀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야생동물 보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하천수질 측정관리와 남대천 수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환경지도팀은 환경오염과 관련해 법규에 따라 점검하고 지도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업무 특성상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주민들의 환경관련 민원이 점차 다양해지고 빈번해져 한밤중에도 민원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밖에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 각종 환경오염 배출 저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원순환팀은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등 쓰레기 처리가 주요 업무다.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

용규제와 단속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 운영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여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시설팀은 환경관련시설 설치와 운영이 주요 업무로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청소,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과 4단계 매립장 증설 공사와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 시설을 신축 중이다.

끊임없는 대화로 주민과 소통

환경과는 지난해 양양군이 신설한 베스트 친절부서 표창장을 받았다. 민원 응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군민 설문조사 결과로 선정하는 친절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정민 과장은 그 비결로 주민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꼽았다. 민원인과 사업자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지만, 주민의 요구와 불편이 해소되고 만족할 때까지 듣고 또 듣는다. 일방적인 업무 추진이 아닌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대화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강조한다. 단속과 민원 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가 친절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전해진다.

이런 민원 응대 노력 때문일까. 그동안 마을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증설 공사 추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올 초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증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다.

환경과는 그동안 단속 위주의 업무가 많았다.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한발 앞서 미리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정민 과장은 환경을 위해 누구나 동참할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환경보호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덜 쓰고 덜 버리고 좀 더 간소하게, 조금 더 불편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알고 있는 걸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진리다. 환경과는 양양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며, 뒤에서 묵묵히 숨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갯마을해수욕장

1986년

2021년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 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조례안 11건 등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했다.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조례안 1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9월 13일 개회식에서 오세만 의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이어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제1차 본회의 이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에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9월 14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에서는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조례안 1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표결하여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부결하였다.

또한 9월 19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낙산 지역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관련 인·허가 처리 및 안전 조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10월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의성, 간사 박봉균)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며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회기를 마무리하며 오세만 의장은 "낙산 싱크홀 발생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역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겠고,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되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양양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관음성지(觀音聖地) 오봉산(五峯山) 낙산사(洛山寺)

낙산사(洛山寺)는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671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금당(金堂)은 원통보전(圓通寶殿)으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모시고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 중 최고이며 관세음보살이 늘 계시는 곳이다. 의상법사가 보살을 친견했던 신비한 관음굴은 지금도 홍련암(紅蓮庵)의 법당 마루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사께서 항상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듣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중생제도를 소원했던 관음성지(觀音聖地) 낙산사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불멸의 법을 마주해본다.

■ 왜 '낙산(洛山)'이라 부르게 되었을까?

낙산(洛山) 이란 지명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에 사신다하여 이를 줄여서 낙산이라 하였다. 원래 이 산은 서역(인도) 남쪽 해안에 있으며 한자로 번역하면 백화수산(白花樹山)이라고도 한다. 중국도 당나라 때 절강성의 주산군도(舟山群島)에 관세음보살이 거주한다고 믿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두 섬을 보타산과 낙가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관세음보살께서 머무는 성지로 추앙되고 있다.

보타낙가산에서 유래한 보타전

■ 낙산사가 불자들의 최고의 기도처가 된 까닭은?

관세음보살은 일체중생의 모든 고뇌를 없애주기 위하여 온 세계 모든 국토에 나타나며 대상에 따라 32가지로 몸을 바꾸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가피(加被, 혜택)를 받는다. 여러 보살 중 가장 대자대비(大慈大悲)하여 부처님 다음가는 성인으로 꼽힌다. 특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해도 즉시 나타나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비를 베풀어주신다고 알려져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중생은 낙산사를 찾게 된다.

■ 낙산사 창건과 설화의 성립은 어느 것이 먼저일까?

삼국유사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편에 의하면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관세음보살께서 낙산에 머문

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찾아와 엄숙하게 기도한 지 7일 만에 관세음보살을 직접 뵙고 대나무 한 쌍이 솟은 곳에 낙산사를 창건하게 된다.

설화에는 관음이 머무는 곳이 '낙산'이라서 낙산사를 창건하였으니 낙산이 낙산사보다 먼저다. 그러나 이 지역을 '낙산'이라고 부른 시기(10세기 초)와 의상대사의 활동 시기(7세기 후반)는 실제로 250년이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의상과 관련된 낙산 설화는 낙산사가 창건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

낙산사 창건 설화를 그린 수월관음도가 10세기 초엽인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설화는 불화가 그려지던 즈음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어지던 설화가 익장(益莊) 스님의 낙산사기에 기록되었고, 약 50년 후인 고려 말(1281년)에 일연 스님이 채록하여 삼국유사로 전해진다.

광여도에 표기되어있는 이화정(梨花亭)

■ 백화도량과 이화정!

낙산은 흔히 백화도량(白花道場) 이라고 하는데 "흰 꽃나무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의 백화수산(白花樹山)이다. 의상법사의 신앙 고백을 담은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도 이 같은 연유로 신성한 백화도량에서 발원을 한 것으로 전한다. 또한 낙산사에는 언제부턴지는 모르나(조선 초기로 예상) 배꽃을 상징하는 이화정(梨花亭)이란 정자가 있었다. 높은 곳에서 바다에 임해 있어, 해와 달 이 그 아래로 출입하였다고 했다.

낙산사 파도소리 해조음(海潮音)

조선시대 홍문관 제학을 지낸 정두경(1597~1673)은 낙산사에 와서 '바다 위의 정자에는 배꽃이 만발하고 낙산 곁의 바다는 아득하다'라는 시를 지었고, 인조 때 강원도 관찰사 조문수(1590~1647)가 낙조(落照) 후에 달이 바다 위로 떠오를 때 이화정에 수레를 멈추고 조산 쪽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었다 하니 이화정은 내로라하는 문신들이 이곳에 올라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배꽃을 지평선에 부서지는 흰 파도에 비유하는 장소였다. 능엄경(楞嚴經)에는 '진정한 깨달음은 들음으로써 들어간다.'는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인 이근원통(耳根圓通 : 귀로 듣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깨닫는 방법)이 있다. 낙산의 파도 소리인 해조음(海潮音)을 들으면서 의상대사가 바라던 깨달음을 얻기를 염원한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뉴스 YANGYANG NEWS

양양읍 서문지구, 전선지중화로 깔끔한 거리 탈바꿈

양양군은 양양중 · 고등학교 주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진한 양양읍 서문지구 전선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했다.

양양읍 서문지구 학교 주변 일대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양양IC를 통해 양양군을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도로 폭이 좁고, 보도 한가운데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의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사업비 48억 원(군비 24억, 한전 및 통신사 부담금 24억)을 투입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해 깔끔한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손양면 밀양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손양면 밀양리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돼 9월 15일 현판식을 가졌다. 산림청 주관의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마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산불발생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소각산불 건수 등 실적에 따라 우수마을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밀양리에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과 시상금(강원상품권 100만원)이 주어지며, 우수마을 이장으로 선정된 최창규 밀양이장에게는 산림청장의 표창장과 시상금(20만원)이 전수된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4,892억원 확정

양양군이 기정 예산보다 570억 원가량 증가한 4,892억 원 규모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양양군의회는 8월 3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2,18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0억 1,110만원이 증가한 4,892억 2,17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03억 4,697만원, 특별회계가 288억 7,481만원이다.

양양남대천 심볼마크, 네이밍 탄생

양양남대천의 PI(Place Identity) 심볼마크와 명칭(네이밍)을 개발했다.

군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물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관된 남대천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PI 심볼마크와 네이밍을 개발해 선보인다.

양양남대천 심볼마크는 양양남대천의 영문표기에서 'YYN' 영문 이니셜을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등성과 강이 바다가 되는 연속성을 모던하게 표현했다. 또한 물놀이장, 산책로, 주민참여정원 등 남대천 곳곳의 대표시설물에 대해 친근감 있는 명칭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픽토그램으로 나타냈다.

양양 종합운동장 풋살장 추가 조성으로 체육시설 확충

양양 종합운동장에 풋살장 1면을 추가 조성했다.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농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4면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로서 활용되어 왔다.

이 중 족구장의 사용 빈도는 거의 없는 반면, 풋살장은 부족해 풋살 동호인과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이용객이 적은 족구장 2면을 철거하여 풋살장 1면을 조성해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CCTV 확대 구축으로 생활안전 대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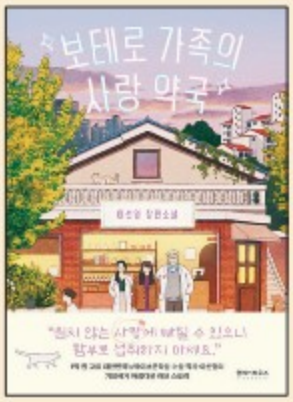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양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CCTV 확대 구축에 나섰다.

군은 공공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CCTV 최적 입지 100개소를 선정하고, 신뢰도 높은 중장기 수요 산출물을 기반으로 3년간 구축 · 완료를 목표로 방범용 CCTV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21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 주요현안사업을 집중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7억, 도비 1억을 확보했다. 군은 올 한해 총 12억 원(특별교부세 7억, 도비 1억, 군비 4억)을 투입하여 노후 CCTV 10개소 교체사업을 시작으로 신규 CCTV 57개소(177대)를 하반기까지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책 속의 세상

10월 책이야기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
| 이선영 지음
| 클레이하우스
| 2022. 9월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무너져 가는 오래된 집들 사이에 번듯하게 리모델링을 마친 수상한 약국 하나가 들어선다. 무려 사랑을 판다느니, 사랑을 완성해준다느니 믿을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데…. 가만 보니 페르난도 보테로 그림 속에 있을 법한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눈이 돌아가게 예쁜 약사 아내와 결혼해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약에 무슨 비밀이 있긴 한 모양이다.

'사랑 약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 공간에는 다른 약국과 다른 특이한 점이 많다. 음악이 흐르고, 허브티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락의자가 놓여 있고, 무엇보다 사랑에 빠지게 한다는 사랑의 묘약이 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이 공간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데…. 과연 사랑을 판다는 이 약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책 속 한 구절

고등학교 시절 늙다리 선생에게 빠져든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다. 그게 다 사랑의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세월과 상황이 그 사랑을 변질되게 하고 변형시키는 것일 테다.

사랑이란 그 자체로도 인간을 빛나게 하는 묘약일지 모른다. 그걸 밝히는 것이야말로 남편 연구의 비의(秘義)일 것이다. 딸도 자신의 인생에 숨겨진 불빛 하나를 스스로 발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사랑의 불빛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게 인생이니까.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이병률 지음
| 달
| 2022. 9월

사랑하는 일.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을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굳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내 마음 위주로만 상대를 당겨야 했던 날들은 우리에게 상실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사랑의 힘은 무엇도 될 수 있게 하고 그 무엇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 [당신이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에서

어느 늦여름 밤 제주의 한 바닷가. 새로 작업하는 것이 있냐는 다정한 후배 시인의 질문에 시인은 아무 생각 없는 척 대답한다. "사랑 이야기를 한 권 쓸까?" 하고. 어떤 바람은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되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기도 해서, 시인은 이를 계기로 사랑 이야기를 한 편 한 편씩 쓰게 된다. 그렇게 모인 글들은 한 권의 책이 되었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그리움의 인자因子"가 움직인 흔적이 사랑이라면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랑은 삶이고, 사랑은 사람이며 여러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그러므로 슬플 것도 쓸쓸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게 사랑의 다양한 모양일 뿐이라고. 여러 사랑을 경험하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니겠냐고 말해준다.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컴백홈

대무가

자백

아인보_아마존의 전설

미혹

블랙아담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양양군
YANGYANG GUN

무료 예방접종

대상	장소	기간	비고
만 65세 이상	관내 의료기관	22. 10. 12 ~ 22. 12. 31	1947. 12. 31. 이전 출생자
		22. 10. 17 ~ 22. 12. 31	1948. 1. 1. ~ 1952. 12. 31. 출생자
		22. 10. 20 ~ 22. 12. 31	1953. 1. 1. ~ 1957. 12. 31. 출생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 10. 20 ~ 22. 12. 31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 만8세 (생애 첫접종자 2회)	중앙외과의원, 성모의원	22. 9. 21 ~ 22. 12. 31	36개월 이상 어린이 접종
	보건소	22. 9. 21 ~ 23. 4. 30	2009. 1. 1. ~ 2022. 8. 31. 출생자
생후 6개월 ~ 만13세 (기접종자 1회)	중앙외과의원, 성모의원	22. 10. 5 ~ 22. 12. 31	36개월 이상 어린이 접종
	보건소	22. 10. 5 ~ 23. 4. 30	2009. 1. 1. ~ 2022. 8. 31. 출생자
임신부	보건소 및 전국 지정의료기관	22. 10. 5 ~ 23. 4. 30	산모수첩 등 증명서 지참
사회적 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 10. 26 ~ 백신소진 시	증명서 지참

※ 모든 접종은 백신 소진 시 마감됩니다.

유료 예방접종

대상	장소	기간	비고
만 14세 ~ 만 64세 (2008년생 ~ 1958년생)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 10. 31(월) ~ 22. 11. 4(금)	신분증, 접종비(10,600원)

보건소 유료접종 : 주민등록상 양양군 거주자만 가능
1일 200명 선착순 접종 / 5일간
☎ 033-670-2540 / 2940 / 2887

예방접종 관내 의료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상명내과의원	양양읍 남문6길 4	672-8712
성모의원	양양읍 양양로 62	673-2800
양양정형외과의원	양양읍 양양로 9-1	672-6723
연세의원	양양읍 양양로 38	672-0092
중앙외과	양양읍 양양로 48	672-0911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서일개발(주) (e편한세상아파트)	1명	아파트 시설기사 (소방안전관리자 필수)	격일근무	월278만원이상
㈜이온바이오	3명	소금건조 및 포장원 경리사무원	1일8시간 (주5일)	연2,800만원 (협의)
KAC공항서비스(주) (양양국제공항)	1명	미화원 (기간제)	1일 8시간 (주5일)	월217만원
동해석재산업	1명	지게차운전원 (자격증 필수)	08:00~18:00 (주5일)	급여협의
㈜신우그린 (설해원)	5명	골프장 코스관리원	08:00~17:00 (토요격주휴무)	연3,000만원
㈜소노에스테이트서비스 (쏠비치)	20명	객실정비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8명	하우스맨 객실관리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230만원
낙산요양원	2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192만원이상
네오팜	1명	음료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195만원
참자연 영농조합법인	1명	송이버섯가공 포장원	09:00~18:00 (주5일)	월195만원
	1명	사무보조원	09:00~18:00 (주5일)	월195만원
㈜월드와이드 써비스코리아	1명	프론트사무원	격일근무	월241만원
효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3명	재가요양보호사	1일 3시간 (주5일)	시급12,000원
주식회사 삼일팩	1명	스티로폼 포장	08:00~18:00 (주5일)	시급 9,160원
지오리조트	1명	객실청소원	09:00~16:30 (주6일)	월210만원 ~230만원
주식회사 스마트푸드	1명	누룽지 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191만원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내용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도 · 시군 2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 내 외 지급

기간 연중(예산범위 내 선착순)

인원 17명

지원대상 관내 기업 대표자(사업주) 및 소속근로자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 단,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제출서류 – 기업 및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이내),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자 : 주민등록초본,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신청방법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문의사항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179) *** 2023년 신규모집이 없을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연내 신청 바랍니다.**

정보꾸러미

2022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11월)

월별	기간	접수기간	수강내용
11월	10. 31. ~ 11. 24. 주간 (화,목) 야간 (월,수,목)	10. 24. ~ 10. 28.	(주간) 디자인 입문반 (포토샵의 기본과정) / GTQ포토샵 (자격과정 강의 및 실습 병행)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교육장소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교육인원 각반12명(선착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적 대응
교육시간 (주간반) 10:00~12:00(화, 목) / (야간반) 18:30~20:30(월, 수, 목)
신청방법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LNG) 보급 지원
지원대상 양양군민 대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건물에 한함 ※ 신청자는 주택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시 세입자도 신청가능
지원요건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 당해 연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한함
지원금액 일반세대 1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0만원/대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접수 양양군청 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www.greenproduct.go.kr/boiler)
문의사항 양양군청 환경과 (☎033-670-2182)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홍보

신고대상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등 대리수검 행위

〈주요면탈사례〉
고의 체중 조절, 정신질환 위장, 손목인대 고의 손상, 청력장애 위장, 척추질환 위장, 생계곤란 위장 등

신고방법
- 인터넷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 전 화 : ☎080-070-9090, ☎033-649-4231
- 우 편 : 25590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05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포상금액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원(기소유예 처분 이상)

정보꾸러미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배출가스 5등급 확인 방법
033-114 또는 인터넷 주소 (www.emissiongrade.moecr.or.kr)
유의사항
조기
폐차
지원금액 (총 중량 기준)
3.5톤 미만 | 기본+추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 기본+추가 최대 4,000만원
매연저감
장치
(DPF)
지원금액
보조 87.5% ~ 90%, 차주 부담액 (10%~12.5%, 28만원~65만원)
지원조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LPG
신차구입
지원금액
200만원 정액 지원
지원조건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구매 시
건설기계
DPF
지원금액
전액지원(무료)
지원조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건설
기계
엔진교체
지원금액
전액지원(무료)
지원조건
2004년~2006년 이전 제작
강원도

질병관리청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 지원기간 |
만 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2.(수) ~ 2022.12.31.(토)
만 70~74세 (1948.1.1. ~ 1952.12.31. 출생자) 2022.10.17.(월) ~ 2022.12.31.(토)
만 65~69세 (1953.1.1. ~ 1957.12.31. 출생자) 2022.10.20.(목) ~ 2022.12.31.(토)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검색하기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스캔하기
1339
KFA

질병관리청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
• 2022-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 (2009.1.1. ~ 2022.8.31. 출생)
| 지원기간 | 2회 접종대상자 2022.9.21.(수) ~ 2023.4.30.(일)
1회 접종대상자 2022.10.5.(수) ~ 2023.4.30.(일)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검색하기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스캔하기
1339
KFA

질병관리청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엄마와 아기 모두 지켜요!
임신부
누구나
• 2022-2023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산모수첩 등)
| 지원기간 | 2022.10.5.(수) ~ 2023.4.30.(일)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검색하기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스캔하기
1339
KFA

양양남대천 심볼마크

양양남대천의 영문표기에서 'YYN' 영문 이니셜을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등성과 강이 바다가 되는 연속성을 모던하게 표현

YYN 양양남대천

YangYang
Namdaecheon

양양남대천 시설물 네이밍 및 픽토그램 조감도

양양남대천 대표시설물 픽토그램

① 파릇파릇 소공원 Little Park
② 퐁당퐁당 물놀이장 Water Pool
③ 샛강수변테라스 Purlver Terrace
④ 잔디광장 Green Square
⑤ 샛강(플랜터)산책로 Purlver Walk

⑥ 두루두루 주민참여정원 Community Garden
⑦송이공원 & 씽씽놀이터 Pine Mushroom Park & Play Ground
⑧ 콩닥콩닥 체험장 Extreme Zone
⑨ 은빛수변길 Water Walk
⑩ 두근두근 전망대 Yangyang Topshill